

'달빛아래 반딧불이' 특별기획전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시작 알리는 자리로 윤강미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

무주군이 최북미술관 특별기획전 '달빛아래 반딧불이'를 마련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예술과 책을 통한 숲,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윤강미의 대표작 '달빛 조각'(창비, 2021)의 원화전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어둠이 내린 숲과 달, 반딧불이, 그리고 가족'을 소재로 한 평면회화 20여 점과 만날 수 있다.

우거진 짙은 청록의 숲과 반딧불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의 신비를 명암으로 표현한 작품 안에서 나무와 풀, 부엉이, 다람쥐, 너구리와 살롱이 등 숲 속 친구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그림책 작가 '윤강미'를 소개하는 △그림책 서가를 비롯해 작가의 작품을 영상으로 재해석한 △설치미술 테마 공간, △포토존 동화테마 공간, △휴식과 캠프를 테마로 한 공간도 함께 마련돼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하유진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추구해온 작가의 철학을 깊이 있게 담아낸 그림책 '달빛 조각'의 수록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며 "자연과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무주군이 최북미술관 특별기획전 '달빛아래 반딧불이'를 마련했다.

그림과 테마 별 전시구성이 무주반딧불축제에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림책 '달빛 조각'은 그림반 숲으로 여행을 떠난 가족 이야기에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수작으로 윤강미 작가는 이 작품 안에 무주에서의 실제 경험을 담았다.

또 무주반딧불축제를 반딧불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추천하는 등 무주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작품과 전시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어른들에게 자연에서의 치유를, 아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험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바 있는 윤강미 작가는 2022년에는 싱가포르 아시안 어린이 콘텐츠 축제 '릿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수상한 재원이다. 작품으로는 "달빛조각"을 비롯해 "나무가 자라는 밭담" 등이 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2023. 9. 2. ~10.)의 시작을 알리는 최북미술관의 특별한 기획전으로 예술과 책을 통한 숲,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전시다.

한편,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 '1박 2일 생태탐험' 등 주요행사 외에도 역동적인 축제를 위해 '치어리링 페스티벌'과 '청소년 '끼' 페스티벌', '신(新) 불버라 페스티벌' 등 젊은 층이 참여하고 즐길만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개막식 입장 퍼레이드와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 버스킹 공연 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태권도의 날, 명사 초청 반디토크 콘서트, 트롯의 날 등 주중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경제적 부담 ↓

장수군, 소득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 지원

장수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에 상관없이 5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1,000원으로, 소득유형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돼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나' 유형 해당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0% 부담으로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군은 민선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여성 심·문화, 돌봄사업 확대 및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실시한다.

양육자와 대상 아동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장수군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사)장수군지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063-350-2106)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시가 있는 숲속 인문학' 열려

진안군원치유숲, 숲속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일화

진안군원치유숲(진안군 정천면 소재, 이하 치유숲)은 지난 9일 전라북도 생나는 시낭송 동호회원 26명을 대상으로 '시가 있는 숲속 인문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숲속 작은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작가와의 만남, 참가자들의 시 낭송회의 순서로 구성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성평등위원회 위원이며 상담·치유 프로그램 트레이너, 인문학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희 시인이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치유숲을 찾았으며 '시로 행복한 나를 찾자'라는 테마로 강연이 진행됐다.

청정 자연환경에 위치한 치유숲의 숲속인문학교실에서 진행된 야외 강

연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시를 통해 내 안의 행복을 찾고 이 세상 모든 대상과의 어우러짐을 강조한 송희 시인의 강연내용은 볼록 잡다수를 대상으로 한 분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듯 했다.

이어진 시 낭송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송희 시인의 시집 '고래 심줄을 당겨 봤니'에 수록된 시를 직접 낭송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송희 시인이 직접 우수자를 선정하여 상품을 증정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이번 행사 참가자 중 일부가 재능기부자로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2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권·소통교육 진행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하반기 창업지원교육으로 인권·소통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요즘 소통을 통한 인권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권·소통교육은 오는 28일부터 9월 13일 오후 5시~7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매주 주 2회/ 총 6회기) 진안

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진안읍 진무로 975)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존엄, 자유, 평등, 연대와 실천,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 등 총 6강으로 진행된다.

진안군은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은 "사회적경제

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과 공공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경제 체계를 의미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와 공존으로 도모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432-9751)에서 문의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누리영화관, 오늘부터 재개관

장수군이 오는 11일부터 한누리영화관을 재개관한다.

군은 지난해 장수 한누리영화관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7일부터 운영을 종료

하고, 영화관을 임시휴관 해왔다.

올해 재정비를 마친 한누리영화관은 8월 11일부터 재개관하며, 1·2관에서 일일 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관은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

며, 8월은 매주 월, 화요일 휴무, 9월부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영화요금은 2D는 7,000원이며, 3D는 9,000원이다.

영화관람을 희망하는 군민은 현장에서 영화에서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경찰서, 태풍 피해 없도록 인력·장비 총동원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에서는 제6호 태풍 키는 북상으로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재난상황실 운영 및 대책회의를 개최, 태풍 관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남기재 서장은 산사태 및 하천 범람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설천면 소천리 나림마을 13명, 설천면 심곡리 관사마을 3명 등 위험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 조치시키고 마을 방송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전파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 등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 지속 순찰 및 도로통제 등 주민 안전에 무주경찰서 전 직원도 신속 대응하고 있다.

남기재 서장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이고 가능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군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히며 안전한 재난 대응을 위해 군민들이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여름밤, 진안 소풍' 음악회 12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12일 오후 6시부터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한여름밤, 진안 소풍' 음악회 행사를 추진한다.

2023년 야간체험관광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야간 관광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행스케치·안다는·김혜정·퓨전 국악밴드 에이도스와 진안초 꿈빛 오케스트라의 낭만 가득한 음악 공연과 텃밭가방, 스트립 파우치, 각정인형, 커피팔찌, 방향제 만들기 등 지역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도 마련돼 있다.

전춘성 군수는 "깊어가는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줄 음악회 행사와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